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경 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시민경제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훼손을 담보로 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나누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 용어는 1987년 발표된 유엔(UN)보고서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다.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연 또는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제, 사회, 환경, 나아가 문화 부문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혁신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불려줘야 할 우수한 자연자원이 훼손될 수 있는 환경규제 완화는 성급하게 실행하기 보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되

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과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완화 이전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청소년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

최근 늘어나는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또 ‘선제회 후개방’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각종 환경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부담스러운 환경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재해 등에 따른 피해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면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규모 개발이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과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의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社 說

‘긱간’ 빈 일선 시·군 교통복지 감당하겠나

민선 6기 전남도의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버스공영제 등의 교통복지 실시를 앞두고 일선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령화와 함께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긴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6일 ‘100원 택시’와 관련, 올 하반기 보성·화순 등 2곳에서 우선 실시하되 오는 2018년 6월까지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모든 시·군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92억8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전남도가 예산의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버스공영제의 경우 곡성·보성·영암·완도 등 4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도입 형태, 시행 시기, 확대 여부, 재정 지원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지사의 공약인 교통복지는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다 교통이 열악한 도서벽지도 많아 재정지원을 통한 100원 택시나 버스공영제 등은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실상 ‘긱간’이 비어있는 시·군이 이를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지립도 10% 미만으로, 공무원들 봉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신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버스공영제의 경우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전체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진단, 여론 수렴 및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손을 놓게 된다면 형세 낭비는 물론 도민에게 큰 짐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광주 공교육 부재가 내문 사교육 열풍

광주 지역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광주시교육청이 펴낸 ‘2014 광주 학생생활 종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0명 중 7명 이상(73.6%)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67.4%보다 6.2%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사실상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교육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교육이 줄지 않는 것은 오로지 성적 향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6.8%나 됐다. 이 가운데 45.4%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거꾸로 해석하면 공교육이 그 만큼 부실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교육은 엄청난 비용 부담은 물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의 위화감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당국이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법 도입 등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되레 증가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유엔 인권기구마저 대책 마련을 권고할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을 줄이는 절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결국 공교육 강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학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교육방송(EBS) 등 학교 밖 공공학습 기회도 더 늘려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문 틀에서는 대학입학 체계를 다시 손질해 학교 생활 전반의 평가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특히 학생의 특기를 살려 진학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건강한 추석 보내기



강 채 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연휴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장거리 운전, 과식, 불규칙한 생활 등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생체리듬을 지켜주고, 부족한 잠은 토막잠으로 보충해야 한다. 연휴 마지막날에는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 연휴 때 가장 힘든 것은 장거리 이

동이다. 승용차로 고향을 갈 때는 생체리듬에 맞는 출발날짜와 시간을 택하는 게 좋다. 운전 피로는 육체 피로보다 정신 피로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정신적 피로는 스스로 느끼는 자각의 정도가 육체 피로보다 훨씬 늦게 나타난다. 장시간을 운전할 때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2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한다. 짜증이 늘거나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표시고, 차 안에서 하품이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됐다는 의미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전석 등받이는 90도로 세우는 것이 좋고 엉덩이는 뒤로 바짝 밀착시키고 운전대와의 거리는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가 허리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만약 사체에 대비해 지역 응급센터 연락처를 전화기 옆에 두는 것도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좋은 방법

이다.

명절 날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 때문에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맛있다고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음, 과식의 예방책은 육식을 내지 말고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자가운전이 많아지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명절 연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절반 이상이 음주와 관련돼 있다. 과음은 물이나 주스를 충분히 마시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샷’이나 폭탄주는 금물이며, 술 마신 다음날은 콩나물국, 북어, 조개 등으로 끓인 국물요리나 꿀물 녹차로 숙취를 해소하면 좋다.

명절날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려면 여럿이 같이 이야기 하면서 천천히 먹고, 자주 먹더라도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끼밖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축적돼 살로 연결돼 버리니 조금씩 먹고 많이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식사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 음식 중에서도 나물 등 무침 요리를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한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며 포도당의 흡수속도를 낮추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고기산적, 갈비찜 등 고칼로리 기름진 음식들을 먹을 때는 야채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명절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과식을 했다면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다. 가능한 소식하고 급제했을 때는 하루 정도 먹지 않고 위를 비우는 게 최선이다. 심하게 체했을 경우엔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구치료를 받고 2~3일 복약하면 호전될 수 있으나 인근에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 없다면 집에서라도 엄지 손톱의 바깥쪽 아랫 부분과 엄지 발목의 바깥쪽 아랫부분을 뽕뽕한 물건을 이용해서 세게 지압을 해주는데 좋다. 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살이 도톰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 고

‘빛고을 골목투어’로 문화의 텃밭을 일구자



김 형 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지금 전국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들은 최초 도시가 형성되었던 구역인 원도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산뜻이 단장, 관광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의 인사동거리와 남산한옥마을, 부산의 보수동 고서점 거리와 감천문화마을, 인천 차이나타운, 전주한옥마을 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원도심은 한 도시가 탄생하여 뿌리를 내린 성장점과 같은 곳으로, 그 안에는 도시발전의 유구한 역사적 문화적 사실들

이 생생한 타임캡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원도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육성은 도시정체성의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광주에도 옛도성을 중심으로 반경 약 2km 범위의 원도심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구·남구·북구의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한 동안 극심한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던 원도심지역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개관을 앞두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은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예술의 거리 특성과 대인시장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도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근대화 시기 서양문물 도입의 관문이 되어 근대건축물인 급급 학교, 교회, 병원 등이 즐비한 앙리뫼 일대를 정비하는 역사마을조성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원도심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이 소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치밀하게 가꾸고 효과적으로 엮어내 살아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수많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화를 주문하고자 한다.

자동차에 갈들어진 현대인들은 너무 걷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성향을 역이용하여 3시간, 5시간, 6시간이 소요되는, 뭔가 흥미 있고 매력적인 도보형 골목투어 상품을 개발한다면 건강생활의 증진과 색다른 문화체험이라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가칭)빛고을 골목투어’의 활성화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내 고장 옛사람들의 삶의 체취를 느끼며 애乡的식을 고취할 수 있다. 선인들의 땅과 숨결이 서린 바닷의 수춧돌과 건물의 기둥을 살펴 보면서 내 고장의 문화재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대내외적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 관광자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원도심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완공을

관광자원의 개발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원도심의 개발은 쇠락해가는 도시기능을 재생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의 상생발전으로 도시전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빈집의 증가에 따른 미관저해와 슬럼화 우려, 지가의 하락, 오물투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구시가지의 공동화의 지옥에 따른 갖가지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원도심 지역에 되살려서 도시기능을 되살리는 방안 마련에 많은 관계자들이 부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지역민들의 충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원도심 지역을 복원·정비하고 이를 도시의 역사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역사문화관광 자원육성의 일환으로 걸어 다니는 ‘빛고을 골목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대중 이용 수영장에 잦은 이물질...위생 철저해야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늘 고민 하던중, 병원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해줬다. 허리가 안 좋을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 되는데 수영은 척추를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빠져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일러줬다.

시내 수영장에 계약을 하고 며칠간 다녔다. 그러던중 수영장에서 우연치 않게

밀바닥을 봤는데 그 안에 웬 알갱이가 보였었다. 혹시나하고 가져왔더니 옥수수 알갱이었다. 그게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어디선가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떨어져 들어왔겠거니 했다. 그런데 다시 열흘쯤 지났을때 수영장 바닥에서 또 다시 일회용 밴드를 발견했다. 정말 이런것들은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가 수영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될 이물질들이

였다. 더군다나 수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입으로 수영장 물을 먹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자주 눈에 띄니 약간 불쾌하고 역겨웠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강사에게 말했더니 뭘 그런걸 가지고 그라나는 투로 대수롭지 않게 대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투로 말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도

수영장이 너무 불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는 껌을 발견했고, 수영장 주변에는 머리카락도 많다고 하면 서 나와 똑같은 불만을 말했다.

나 혼자만 느끼는 불편이 아니라면, 수영장은 대중이 이용하고 또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니만큼 위생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더군다나 각종 전염병이나 피부염을 일으킬수 있는 곳이 수영장이니 이런 청결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 等 鼓

팔빙수엔 팔만 있는 게 아니다. 과일이나 떡·젤리·시리얼 플레이크를 얹어 먹기도 한다. 고대에도 팔빙수와 비슷한 게 있었던 모양이다. 겨울에 저장했던 얼음을 꺼내 여름에 과일과 향료를 섞어 먹었다는 것이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알프스에서 가져온 얼음과 눈으로 술과 우유를 차게 해서 마셨다고 한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베이징에서 즐겨 먹던 프로즌 밀크(frozen milk) 제조법이 베네치아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얼음을 쪼개 화체에 넣어서 먹거나 혹은 얼음궐반에 과일을 담아 먹기도 했다. ‘성호사설’을 쓴 이억도는 그렇게 더위와 갈증을 달랠다고 했다. 얼음으로 쟁반을 만들어 그 위에 여름 과일을 띄워 먹는다니 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가. 물론 당시로서는 엄청난 호사(豪奢)였을 것이다.

지금의 팔빙수는 잘게 부순 얼음 위에 차게 식힌 단팥을 얹어 먹는 일본음식이 일제강점기 때 전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과일빙수·커피빙수·녹차빙수·인절미빙수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한 국식 디저트 카페인 ‘설빙’(雪氷) 역시

다양한 재료의 팔빙수를 내놓고 있다. 어느 날 딸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설빙 카페엔 기다리는 고객들로 기다랗게 줄이 서 있어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나이 든 사람들로서는 가격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빙수 한 그릇 값이 대부분 직장인들의 점심값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처럼 가족들과 둘러앉아 더위를 식히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누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무 덥고 너무 아프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팔빙수 사 가지고 청운동 동사무소로와 주시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번 만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만나서 말을 들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팔빙수 한 그릇 사 가지고 가서 더위에 지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신 말씀이다. /이흥재 논설교론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통권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경 고 마 케 팅 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 젝 트 팀 2200-55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